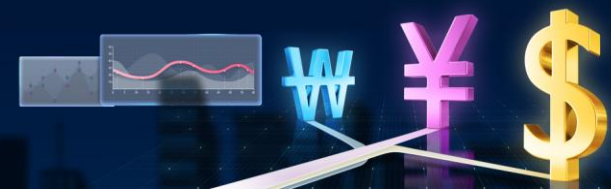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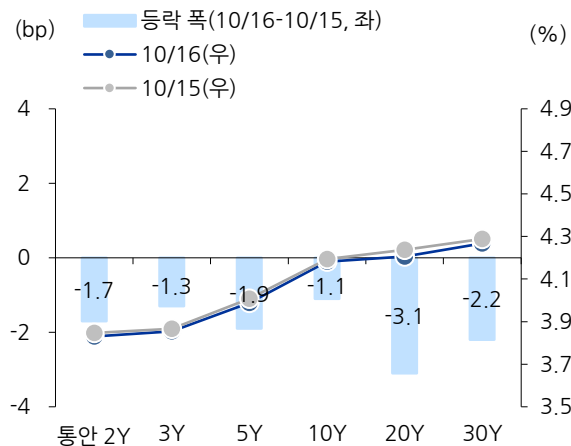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FX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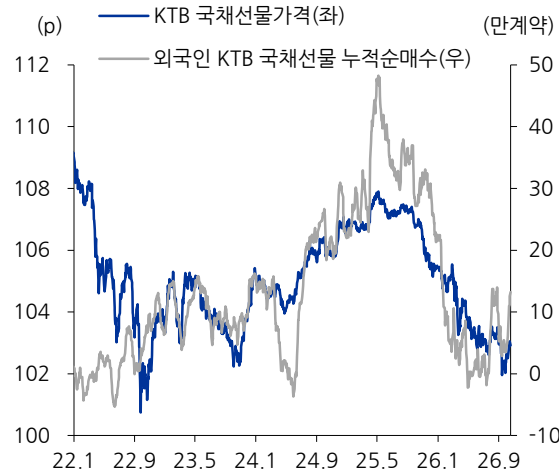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0/19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877%	2.3	-4.4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205%	2.3	-10.1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32.8	32.8	38.5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2.92	-13.0	15.0
	10년 국채 선물(LKT)	106.23	-41.0	82.0
	미국채 2년물	4.775%	6.6	-1.5
	미국채 10년물	5.141%	6.6	-10.0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36.6	36.6	45.1
	독일국채 10년물	3.473%	3.8	-1.0
	호주국채 10년물	5.231%	-0.1	-8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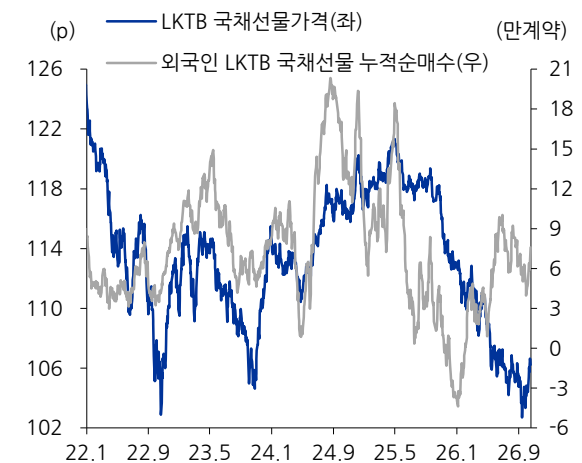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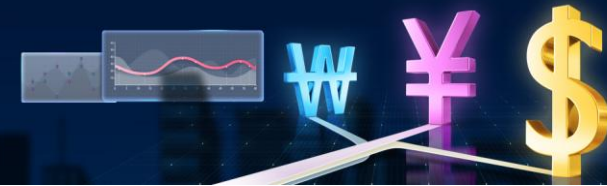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금통위 앞둔 경계심 발동.
-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이어졌으나 지난주 주식시장 폭락에 연동되며 금리 하락한 뒤 그에 대한 되돌림 일부 작용하면서 금리 상승. 국고 10년물 입찰도 호조를 보였으나 금리 방향성을 이끌진 부족했음.
- 국내 주식시장이 소폭이나마 반등한 가운데, 10월 금통위를 앞둔 경계심도 함께 나타나면서 금리 상승세 지속. 10월 금통위 동결 이미 반영됐으나 11월 인상 시그널을 확인하고 가야한다는 불안이 작용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30년 금리 5.50% 근접한 수준으로 재상승.
- 장중 금리 꾸준히 상승. 10월 FOMC를 앞두고 동결 가능성이 우세했지만 대외 불안에 따른 채권시장 투자심리 부진 확인됨.
- 재정 우려 등으로 시위가 격화된 프랑스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면서 기타 유럽 및 미국 금리도 동반 상승. 최근 금리 하락을 이끌었던 기술주 중심 주가 급락도 일부 진정된 것도 영향.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% 이상 상승했고 국제유가도 장중 상승 흐름 이어감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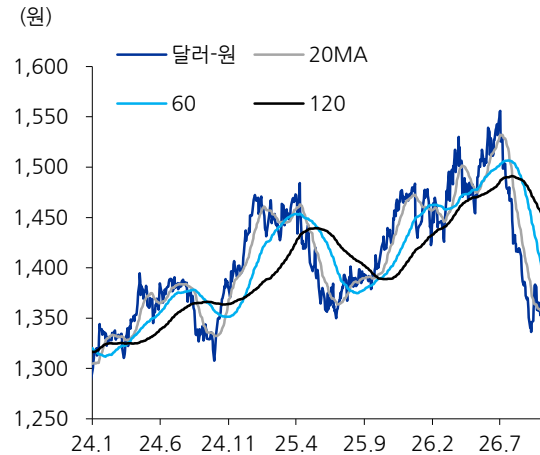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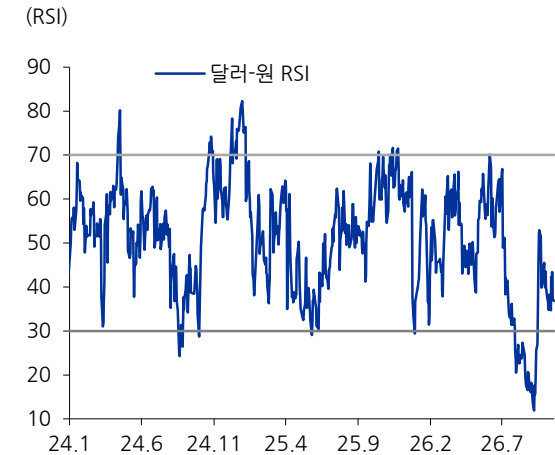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10/19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30.30	-0.1%	-0.4%	-7.6%
	달러지수	101.97	0.2%	-0.6%	3.7%
	달러/유로	1.12	-0.2%	0.5%	-4.5%
	위안/달러(역외)	6.68	-0.1%	-0.2%	-4.3%
	엔/달러	158.49	0.3%	-0.1%	1.2%
	달러/파운드	1.33	-0.2%	0.7%	-1.2%
	헤알/달러	5.03	-0.6%	1.0%	-8.8%
상품	WTI 근월물(\$)	103.66	2.2%	10.6%	80.5%
	금 현물(\$)	4,140.85	-0.6%	-0.7%	-4.1%
	비트코인(\$)	81,980	0.4%	-1.1%	-6.7%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수출업체 달러 매도에 -1.10원 하락한 1,330.30원에 마감, 연저점 재차 경신(야간 1,333.10 원).
-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우위 장세 이어짐. 지난 주 외국인 국내증시 대규모 순매도(주간 코스피 11.2조원 순매도) 이후 커스터디 매수 수요가 하단을 지지.
- 막대한 경상흑자에 따른 달러-원 하락 기대가 이어지고 있음. 외국인의 증시 투매가 진정될 경우 달러-원의 추가 하락이 나타날 전망,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프랑스 정치 불안에 따른 유로화 약세와 美 국채금리 상승 속 강세(DXY +0.2%).
- 주말 대규모 시위 이후 재정 우려 확대되며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장 대비 +14.5bp. 상승한 4.93%로 급등, 독일 10년물 국채와의 금리차도 147bp 수준으로 확대. 유로화는 약세를 보임.
- 프랑스 금리 상승에 더해 기술주 반등에 따른 위험선호가 재개되며 美 국채금리도 상승해 달러 강세를 지지.
- 유로존 재정 불안과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여건 긴축은 ECB의 추가 인상 기대를 약화할 수 있음. 프랑스 재정 문제는 달러에 완만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.